4단 콤보 종말신앙

(마25:31-46)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4단 콤보 종말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4단 콤보 종말신앙'
십자가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믿음의 주께서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종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종말적 신앙이 한 부분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신앙 전체의 색깔이 종말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적 특성을 상실하면 기독교신앙은 기독교적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종교의 종교 심리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 신앙이 4단 콤보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구분되어지는 네 단계가 하나로 합쳐질 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종말신앙, 아니 기독교적 신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최후심판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을 의인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어떤 심판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느냐?
본문을 가만 보니까 결핍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그 결핍을 채워주는 삶을 산 자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영원한 복락과 영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곧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밉시다!' 그러면서 '이웃을 향하여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하여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기독교의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적어도 25장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는 25장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되고, 심지어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24장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야 25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바로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 돕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이 중요하고, 굴러가는 타이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핸들과 타이어만 사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기독교적 신앙, 그것은 종말적 신앙입니다.
이 종말적 신앙의 내용이 네 단계가 하나로 합쳐진 콤보로 돼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마지막 단계를 펼쳐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앞에 있는 세 단계가 어떻게 합쳐져 나가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24장부터 해왔습니다.
24장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말한다고 하면 '소종말과 대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고,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염두에 둘 때, 대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대종말 때 이루어지는 일이 내 마음에서 이미 소종말적 차원으로 성취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대종말을 향해 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은 반드시 소종말을 매일매일 마음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종말이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멀리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종 된 신분으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있으려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해와 달과 지구와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의 모든 세계를 다 내 마음에서 종말을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 들려지지 않는 예수님, 오감으로 잡을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생활이 바쁜 바람에 결혼기념일을 55년 동안 잊어버렸던 어떤 할머니처럼 보이는 세상에 바쁘게 마음이 매여 있는 한, 절대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깨어있을 수 없다, 그래서 소종말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오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열처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해서 슬기로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게 바로 열 처녀 비유를 이해하는 바른 키예요, key.
더디 오는 신랑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더디 오는 신랑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신랑은 통과절차에 불과하고 신랑이 오면 들어가게 될 잔치 집에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기다림의 ‘미학’입니까?
기다림의 지루함, 짜증,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한 이유는 황지우 시인의 시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간다’
네가 오지 않는 동안에 나는 너에게로 간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짜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지금 계시는 그 하늘나라고 간다는 겁니다.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신랑에게로 가서 신랑의 처지를 고려했던 것처럼, 이미 마음이 주님께로 가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육체를 통해 접하는 세상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듯이 육체 대신에 성령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주님 계신 그 천국을 보며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소종말이 첫 번째 단계로 세상 전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마음이 죽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세상 밖에 있었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재능과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렇게 가서 천국의 상황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듯이 예수님과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 나도 안타까워하고, 겉으로 보면 마치 아첨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랑에게 마음이 간 다섯 처녀가 신랑과 마음을 똑같이 맞추어가는 신랑의 마음에 내 마음을 얹어놓는 더 깊은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재능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그렇게 일치시켜가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진 달란트라고 하면, 벌어들인 달란트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성취된 달란트의 현장을 오늘 본문은 펼쳐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온 종말적 신앙의 내용을 마지막 단계를 염두에 두면서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배부름의 영성'입니다.
기독교적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영성이라는 것은 배부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까지 와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마음을 맞춰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우선적으로 관계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아버지를 우선적으로 관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아버지와 관계하는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는 아버지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가 기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간 마음이 오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배부름의 영성이 나타나는데, 그 배부름의 영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타(利他)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성취해서 지금 부른 배에 더 채워 넣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더 배부르지 않고, 서울대학 들어가도 더 배부르지 않고, 승진해도 더 배부르지 않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었다고 더 배부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3단계까지 와서 재능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배부름의 영성.

예수님과 마음이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들이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배고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내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의 배가 고파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이 배부름의 영성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어떻게 배부른 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소종말이 일어나고,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 주님에 대해 깨어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부름의 영성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부름의 영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또 이 4번째 단계를 다른 측면으로 말을 하면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영성이 됩니다.
기독교 종말적 신앙의 특징을 세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종말적 신앙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본문을 따라서 이해를 하세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즉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된다, 열 처녀,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지는 4단 콤보로 이루어진 종말신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름의 영성이 있고, 두 번째로 성동격서의 영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동격서란 동쪽으로 소리를 지르며 서쪽으로 손을 내밀어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손과 발은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성동격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즉 '성 천국 격 이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하여 행하는데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손녀가 캐나다 밴쿠버의 캠프에 왔습니다.
그 권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제 손녀가 지금 밴쿠버 캠프에 참가했는데 목사님께서 좀 돌봐주세요!' 나는 그 손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리더에게 허락을 받아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불고기를 해주고 얼마를 함께 했습니다.
행동은 그 손녀에게 했지만 그 행동의 이유가 권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과 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성동'하면서 '격서'하는 것, 이웃에 대해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동격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4단 콤보로 이루어진 종말신앙이 갖추어지면 마지막으로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영성이 바로 이렇게 배부름의 영성으로, 성동격서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달란트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달란트의 영성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계속해서 달란트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내 뜻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왕창 왕창 계속 계속 연이어서 이 땅에서 성취되어 집니다.
이게 달란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주어진 달란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다섯 달란트로 남긴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달란트의 영성,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만, 하늘의 계획만 이루어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4단 콤보로 이루어진 종말신앙은 매일매일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루터는 daily baptism,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고, 우리는 '오늘의 번제'라고 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소종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다섯 처녀처럼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께로 내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재능,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배부른 것처럼 이제 비로소 내 마음에 배부름의 영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격서의 영성이 생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서 행동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웃을 향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배부름의 영성에서 성동격서의 영성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끊임없는 달란트가 획득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4단 콤보의 종말적 신앙을 굳건히 갖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배부름의 영성으로, 성동격서의 영성으로, 달란트의 영성으로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